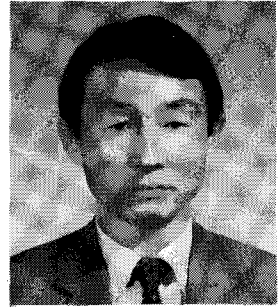




우리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때



박갑순
본회이사, 우리농장

지난 3년간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이사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가까운 주변에 있는 낙농가 만이라도 모두 우리 협회에 동참하도록 했어야 마땅한데도 그러질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으니 다른 일이야 더한 것이 없는것 아니냐는 죄책감 때문에 괴롭고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 없다. 그런 중에도 어느 낙우회 전체 회원이 선뜻 우리 협회에 가입한 분들을 만나면 우리가 앞장서서 희생하면 언젠가는 모두가 따라와서 고맙게 여기지 않겠느냐고 자위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물론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동업자들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때로는 야속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그러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농촌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 아니냐고 반문해 보고 싶을 지경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고 책임질 수 밖에 없다는 의식의 개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나도 이제 협회의 이사가 아닌 평회원으로 돌아가면서 동업자 여러분께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변에 있는 모든 동업자를 우리 협회에 동참토록 노력해서 늦었지만 우리 모두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려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 하자는 것이다.

나는 우리 협회의 이사가 되고나서 우리 낙농육우 협회가 실제로 회원들 뿐만 아니라 전체 낙농육우인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부심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많은 중요한 일들이 우리 동업자들의 이익과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았던 것 같다. 차제에 저는 우리 협회가 하는 많

1995년 부터는 분유·치즈·버터등의 모든 유제품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 올텐데도 우리는 뚜렷한 대안없이 “낙농진흥법” 하나 통과 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낙농산업이 붕괴되는 것은 어느 한 순간에 가능할 수 있지만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한 소비자들이 실제로 낙농제품 및 국산소고기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못했기 때문에 향후 약 5년 정도는 크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은 업적 중에도 중요하거나 급한 사항은 국내 유일의 낙농육우 전문지인 월간 낙농육우지에 만화를 삽입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바쁜 사람이 일견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또 우리 낙농육우인 모두의 직접적인 이해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해결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면 회원들에게 더 가까이 느껴지리라고 생각된다. 예를들면 약품에 대한 피해사례의 해결이라던가, 기계나 설비의 원천적인 결함, 시공상의 결함등으로 일어나는 피해같은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회원들도 협회를 더 가까이 접하고 느낄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낙농진흥법 개정안이 1994년도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또 해를 넘겼다는 사실이다. 우리 협회가 정부관계 당국이나 정치인, 그리고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추진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 자괴를 금할 수 없다.

이제 “세계무역기구”가 출범되어 우리의 문은 활짝 열수 밖에 없는 현실앞에서 우리협회는 지금까지 한 것 보다 더 신속하게 국제적인 정보와 흐름을 우리 모두에게 전달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어야만 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현재와 같이 안이한 자세로 간다면 어느날 갑자기 우리는 큰 시련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 이유는 낙농선진국들은 대부분이 생산량 조정 체계를 사회주의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데 매년 예측 수요량의 5% 정도를 상회 하도록 생산하고 있으며 이 경우 소비하고 남는 부분이 발생되면 약 50%의 수출보조금(이는 낙농인들이 조성한 자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대부분임)을 지급하여 수출하고 있다는 현실과 그들은 유제품이 대부분 주식에 가까운데 그 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우유와 고기의 생산원가에 대해서는 미국도 경쟁할 수 없다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우리와 가까운 아시아권에 속해 있으며 이들은 식량자급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차원을 넘어 수출을 위한 국가 산업으로 치부하고 육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부 무책임한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낙농은 경쟁력이 있으니 공연히 미리 겁낼 필요없다는 주장으로 우리를 현재까지 안일하게 유도해 왔다. 그 논리인즉 첫째, 외국 어느 나라건 우유를 수출코져 생산하는 나라가 없고, 두번째 세계 어디나 우리와 마찬가지로 소똥속에서 일해야만 하는 생산조건 때문에 낙농업을 기피하고 있으며, 세번째로 특히 음용유는 신선도 때문에 일본만 경계한다면 자국 수요품외에는 공급이 불가하다는 등이었다. 이런 주장논자들 중에는 한술 더 떠서 “낙농진흥법”의 개정안은 정부가 농민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숨은 의도의 산물이라는 묘한 주장을 해 왔고 여기에 이제까지 타 축산업에 비해 큰 시련없이 살아온 우리 낙농인들의 자세도 적극적이지 않아 오늘날 우리앞에

엄청난 위기가 있음을 보고도 대처할 길이 없게 된 현실은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나 얼마 전 호주 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 “멸균유”의 유통기한을 8개월로 해 달라는 요청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신문 보도가 있고 나서는 이러한 논리를 주장해 온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용해진 것 같아 안타깝다. “낙농진흥법”의 개정을 반대해 온 사람들은 이런 때 앞서 호주 정부의 요구에 대한 명쾌한 대안을 제시해야만 책임감 있는 것 아니냐고 묻고 싶다.

과연 1995년부터는 분유·치즈·버터 등의 모든 유제품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 올텐데도 우리는 뚜렷한 대안없이 “낙농진흥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낙농산업이 붕괴되는 것은 어느 한 순간에 가능할 수 있지만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한 소비자들이 실제로 낙농제품 및 국산쇠고기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못했기 때문에 향후 약 5년 정도는 크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약 20년여의 도시생활 끝에 농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방인 같은 느낌으로 농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바 우리 농촌은 농민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우리들 스스로에 대한 책임 의식과 소비자를 위한다는 자세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노력한다 해도 우리의 제품은 소비자들이 애용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존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닌가. 따라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식품을 생산하는 우리는 정성을 가지고 소비자를 위해 고생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때만이 생존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때 만이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해 본다.

우리 모두 우리의 미래와 후손들의 밝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우리의 정열을 다하여 노력하면 세계의 어느 낙농육우인과도 경쟁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되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들 스스로에 대해 책임지고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